



필리핀한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y 2024 Issue | Vol. 32

SPECIAL POINTS OF INTEREST

- **Peso 약세가 금리 인상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 IMF — page 1
- **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무역 협상, 다음 주 시작** — page 2
- **대한민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합니다.** — page 2-3
- **중앙은행(BSP)은 4월 인플레이션을 3.5-4.3%로 전망합니다.** — page 3-4
- **마크스가 최저임금을 검토 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도록 임금위원회에 지시** — page 4-5
- **마하리리카는 BCDA 클락 및 포로 포인트 프로젝트에 투자 고려 중** — page 5
- **'최신 투자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개혁이었으며, 차 차가 아니었습니다'** — page 5-6

Peso 약세가 금리 인상을 다시 유발할 수 있다 — IMF

May 01, 2024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약세에서 비롯된 물가상승 압력이 중앙은행들에게 다시 한번 통화정책을 견실하게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인 BSP(Bangko Sentral ng Pilipinas)도 포함된다.

가상 브리핑에서 IMF 아시아-태평양부 부서장 Krishna Srinivasan은 지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대신 국내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Srinivasan은 "환율 변동이 높은 패스루를 유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여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IMF의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고 정책을 조정하십시오," 그는 말했다.

와싱턴에 본부를 둔 다자간 대출기관의 제안은 페소가 4월 16일 이후 1달러 당 57페소를 넘어서며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다. 지난날 페소는 1달러 당 57.76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이전 마감보다 9센타보가 하락한 수준이다.

Srinivasan에 따르면, 아시아 중앙은행들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간의 이자율 차이는 통화압력을 계속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통화당국에 딜레마를 초래할 것이다.



In a virtual briefing, IMF Asia and Pacific Department director Krishna Srinivasan said central banks in the region should not be overly dependent on what the US Federal Reserve does and instead focus on domestic inflation.
Philstar.com / Irra Lising

"환율 변동성은 수입업자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특히 달러 거래에 고정되어 있고 해외 수입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환율 약세에서 수입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IMF 관계자는 이러한 변동성에 직면했을 때 중앙은행들이 미국의 이자율과 달러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재무적 교란이 적고 더 나은 거시경제 기초와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으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환율을 버퍼로 활용하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BSP는 4월에 연속 4회째로 주요 금리를 17년 만에 최고치로 유지하면서 키 레이트를 6.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통화위원회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50 기점의 급격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Srinivasan은 "필리핀은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견실하며,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IMF의 2024년 4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필리핀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은 6.2%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이번 해의 성장률은 전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4.5% 성장률 전망보다 높는데, 이는 이전 4.7%의 예측에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의 5%, 말레이시아의 4.4%, 태국의 2.7% 및 싱가포르의 2.1%를 상회하는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도 IMF는 필리핀이 여전히 6.2%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6.1%였습니다.

필리핀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평균 3.6%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더욱 더 낮은 3%로 더욱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의 6%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예측입니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5/01/2351608/peso-weakness-could-prompt-rate-hike-anew-imf>

필리핀-아랍에미리트(UAE) 무역 협상, 다음 주 시작

May 02, 2024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다음 주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마닐라는 올해 말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산업부 국제무역 차관인 Allan Gepty는 화요일에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무역조직(WTO) 협정에 관한 종합적 경제적 협력 협정(CEPA)의 첫 번째 협상 라운드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두바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당연히 필리핀에 매우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많은 전문가와 기업이 있습니다,"라며 "물론 아랍에미리트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에서 안정된 비즈니스 환경이 항상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비행기 부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에 발표된 발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항공우주 부품 수출에서 매우 강합니다,"라고 Gepty가 지적했으며, "농산물부터 산업제품까지 모든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협정을 확보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적재산권, 경쟁, 디지털무역 및 전자상거래에 대해 협상할 것이며, 필리핀은 또한 정부 구매 및 서비스 관련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합니다.

2024년에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 간 50년의 외교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나라는 1974년 8월 19일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해 안에 [FTA]를 완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외교 관계에서 좋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Gepty가 말했습니다.

두바이와 마닐라가 교대로 협상을 주최하므로, 다음 라운드는 필리핀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2일에 무역 장관 Alfredo Pascual과 아랍에미리트의 외무 상무 Thani bin Ahmed Al Zeyoudi가 유엔 기후 변화 회담의 행사 공간에서 CEPA에 대한 참고 용어를 서명했습니다.

Pascual은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고 인용되었습니다.

국유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는 약 한 달 전 만난 Al Zeyoudi가 협상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5/02/business/top-business/ph-uae-trade-talks-to-start-next-week/1944319](https://www.manilatimes.net/2024/05/02/business/top-business/ph-uae-trade-talks-to-start-next-week/1944319)

대한민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합니다.

May 02, 2024 | By Reuters | Malaya Business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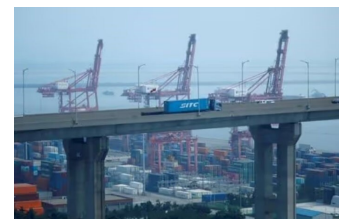
서울 - 수요일에 발표된 무역 자료에 따르면, 강한 반도체 수요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와 미국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월에도 대한민국의 수출이 연속 7개월째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네 번째로 큰 경제의 해외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상승하여 562.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에코노미스트들의 로이터 조사에서 예상된 13.7% 상승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현재의 성장 기간에서 가장 느린 전월에 3.1%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 최상목은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두 해여만의 최고 속도로 1분기에 성장한 후, 이번 자료가 경제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의 수출은 6개월 연속으로 성장하여 56.1% 상승하였으며, IT 제품 전반에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의 판매량은 10.3% 상승하여 67.9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의 월간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Cont. page 3]



A truck carrying a shipping container traveling past cranes at Pyeongtaek port. (Reuters Photo)

대한민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합니다.

[Cont. from page 2]

미국으로의 수출은 연이은 9개월째로 성장하여 24.3% 상승하여 11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으로의 출하량은 전월 대비 0.4% 상승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9.9% 상승했습니다.

4월 수입은 3월에 12.3% 하락한 뒤 5.4% 상승하여 547.3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6.2% 상승을 예상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4월에 15.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3월의 42.9억 달러의 흑자보다 좁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장 생산량은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화요일에 발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시장 예상을 못 따라갔습니다.

3월에 계절 조정된 기준으로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3.2% 감소하여 2월의 2.9% 상승과 비교하여 로이터의 경제학자 조사에서 예상된 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south-korea-exports-rise-anew/](https://malaya.com.ph/news_business/south-korea-exports-rise-anew/)

중앙은행(BSP)은 4월 인플레이션을 3.5-4.3%로 전망합니다.

May 01,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4월에 더 빨리 가속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2-4% 목표를 넘어섰을 것으로 백악관 센트럴 बैं크 (BSP)가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한 달 앞 예측에 따르면 4월에 인플레이션은 3.5%-4.3%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4월의 6.6%에 비해 느립니다.

예측의 상단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4% 목표 대역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하단은 3월에 기록된 3.7% 인플레이션보다 느릴 것입니다.

필리핀 통계국 (PSA)은 5월 7일에 4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쌀과 고기의 가격 상승과 함께 휘발유 가격 상승 및 폐소의 약세가 이번 달의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요 원인입니다," BSP가 화요일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농업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기준으로 현지 잘 연쌀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kg당 45페소에서 55페소로 오르고, 보통 연쌀은 1kg당 46페소에서 52페소로 상승했습니다.

4월에는 휘발유의 리터당 순 증가액이 2.25페소이며, 디젤은 0.50페소이고, 케로신은 리터당 0.80페소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폐소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7페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BSP 총재 Eli M. Remolona Jr.는 BSP가 "불필요한 움직임과 과도한 변동성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폐소의 최근 성능이 중동의 충돌로 인한 미 달러의 강세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낙수류, 과일, 채소의 낮은 가격과 전기요금 및 LPG(액화 석유 가스) 가격의 인하가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BSP가 덧붙였습니다.

Manila Electric Co. (Meralco)는 발전 및 송전 요금이 감소함에 따라 1kWh당 0.9879페소로 3월의 11.9397페소에서 4월에는 10.9518페소로 전체 요금을 낮췄습니다.

LPG 가격도 이번 달에 낮았습니다. Petron Corp.는 4월에 LPG 가격을 1킬로그램 당 1페소씩 낮추었습니다.

Security Bank Corp.의 수석 경제학자인 Robert Dan J. Roces는 이메일 노트에서 식품 인플레이션이 7월까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4]



A customer buys rice at a stall in Paco Market, Manila, April 6, 2024.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중앙은행(BSP)은 4월 인플레이션을 3.5-4.3%로 전망합니다.

[Cont. from page 3]

"식품 인플레이션이 8월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식품 인플레이션은 3월에 5.7%로 상승하여 지난 4개월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며, 2023년 11월의 5.8% 이후입니다.

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경제학자인 Michael L. Ricafort는 엘니뇨가 건조한 기간 때문에 벼 가격이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4월 23일까지 엘니뇨로 인한 농업 피해는 439억 페소에 이르렀습니다. 벼 손실은 총 농업 피해의 62%인 271억 페소에 달합니다.

3월에는 벼 인플레이션이 24.4%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의 24.6% 이후 최고 속도입니다.

정책 일시 중단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성장을 전망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oces 씨는 중앙은행이 다음 회의에서 정책 일시 중단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고려할 때, 우리는 BSP가 5월 16일에 예상대로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4월에도 명목금리를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6.5%로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결정을 4번째로 연기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통화정책위원회는 450 기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Roces 씨는 BSP가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기 위해 그들의 타격적인 음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BSP는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고 이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Roces 씨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에 따라 후반기에 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icafort 씨도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특히 인플레이션이 2%인 Fed의 목표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조심성을 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Fed의 2일간의 정책 회의는 수요일(5월 1일)에 종료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01/592096/bsp-sees-april-inflation-at-3-5-4-3/](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01/592096/bsp-sees-april-inflation-at-3-5-4-3/)

마르코스가 최저임금을 검토 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도록 임금위원회에 지시

May 01, 2024 | Charles Dantes | Manila Standard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수요일에 대통령 마르코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 순수 임금을 적시에 재검토하기 위해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수석 집행관은 노동절 연설에서 이와 같은 지침을 제시했으며, "최근 임금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의 일일 최저임금은 573.00페소에서 610.00페소 사이에 있습니다.

"국가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에게 지침을 재검토하고, 위원회가 임금 검토, 발급 및 시행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19대 의회의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취업 창출 의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에는 기업 기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법, 개정된 견습 프로그램 법 및 CREATE MORE를 포함합니다. [Cont. page 5]

마르코스가 최저임금을 검토 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도록 임금위원회에 지시

[Cont. from page 4]

말라카낭에서 열린 행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하우스 스피커 마틴 로무알데스와 노동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가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노동법 (LCP) 제정 50주년과 노동절 기념식에서 필리핀 근로자를 표창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과 영혼이며, 우리의 성공을 진보시키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꿈꾸는 이유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수백만 명의 국내외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바공 필리핀'(새로운 필리핀)의 얼굴입니다 -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영광과 존경, 존경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3년 10월 11일 Proclamation No. 368에 따라 5월 1일을 정식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standard.net/news/top-stories/314441817/marcos-instructs-wage-boards-to-factor-inflation-in-its-review-of-minimum-pay-rates.html](https://www.manilastandard.net/news/top-stories/314441817/marcos-instructs-wage-boards-to-factor-inflation-in-its-review-of-minimum-pay-rates.html)

마하를리카는 BCDA 클락 및 포로 포인트 프로젝트에 투자 고려 중

Apr 29,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마하를리카 투자 회사(MIC)는 베이스 컨버전 및 개발 단체(BCDA)의 다섯 개 프로젝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에는 MIC와 BCDA가 "BCDA 부동산 내에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다섯 개 프로젝트는 클락 국제공항 확장, 뉴 클락 시티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 클락 통합 대중 교통 시스템, 포로 포인트 선창 현대화 프로그램, 클락 중심 비즈니스 지구입니다.

"물론, MIC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BCDA 대통령 겸 최고 경영자인 조슈아 M. 빙칸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약 40억 달러의 총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MIC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러한 PPP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 비용의 대다수(60%)는 사설 부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40%는 정부 파트너들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물론 마하를리카입니다," 빙칸 씨가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올해 안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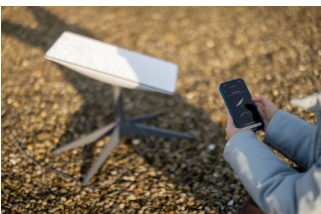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4/29/591793/maharlika-considers-investing-in-bcda-clark-poro-point-projects/](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4/29/591793/maharlika-considers-investing-in-bcda-clark-poro-point-projects/)



BCDA.GOV.PH

'최신 투자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개혁이었으며, 차 차가 아니었습니다'

Apr 29,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Starlink satellite dish setup

필리핀이 최근 외국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한 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을 가능케 하는 규칙의 수정과 개선이 경로를 열어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쓴 반박문에서 나타났으며(참조: <https://econ.upd.edu.ph/dp/index.php/dp/article/view/1553/1038>), 이들은 Foundation for Economic Freedom (FEF)가 이전 논문에 제기한 점들이 실제로 반 헌법 개정 주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문에서 UPSE의 경제학자들은 FEF가 재생 에너지와 "스타링크가 필리핀 시장에 진입"과 관련하여 취한 입장에 특히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6]

‘최신 투자 가능하게 만든 것은 개혁이었으며, 차 차가 아니었습니다’

[Cont. from page 5]

UPSE의 경제학자들은 "투자자 신뢰를 얻는 열쇠는 다소 평범한 것입니다: 부문 조정의 현저한 개선, 공정한 규제, 인식된 부패의 감소, 그리고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경쟁장을 왜곡하는 오랜 기간에 걸친 행정 규칙과 일반 법규의 수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결국 목표는 정부 이상향을 찾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경험은 필요한 부패 인식의 개선이 이미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UPSE의 경제학자들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에너지부(DOE)의 2009년 발표를 "수정하고 정제함"으로 이루어졌으며, 스타링크의 투자는 수십 년간의 공공 서비스법(PSA) 개정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생 에너지의 경우, UPSE의 경제학자들은 재생 에너지 법률(법률 9513호)의 시행 규칙 및 규정 제19조를 수정 및 정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디리만의 경제학자들은 DOE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힘을 혼동하여 재생 에너지의 외국 자본 소유 한도를 4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운동 에너지에는 물, 바람, 태양 및 해류 등이 포함되며, 위치 에너지는 자연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박문에 따르면, 현재 DOE 지도부는 이러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2022년 11월에 IRR 개정을 발표하여 이전 DOE 명령에 의해 부과된 외국 소유 제한을 없앴습니다.

스타링크의 경우, PSA의 시행 규칙 및 규정이 나오기도 전인 2022년 5월에 국가 통신 위원회에 의해 가치 추가 서비스(VAS)로 승인되었습니다.

UPSE 경제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전기 통신 투자의 경우, "역사적 사실"은 디토 전기 통신이 2018년에 전기 통신 시장 입찰에 참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2022년에 공공 서비스 법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1987년 헌법에 포함된 60-40 규칙이 Dennis Uy와 China Telecom의 사업 기회에 여전히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일화가 기존의 헌법 규정의 제한적 성격이나 의회의 유연성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토의 진입에는 의회의 조치나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PSE의 경제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FEF의 경제학자들은 필리핀이 이미 외국 직접 투자(FDI)에서 "100년의 고독"을 보낸 후에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높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FEF는 필리핀이 FDI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적인 차 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UPSE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12/cha-cha-not-a-necessary-1st-step-to-lure-investments/>)

FEF 회원들은 외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필리핀에서 FDI를 유치하는 필수적인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UPSE의 경제학자들은 기관 및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FEF는 "외국 사업에 대한 문을 열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적 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EF 회원들은 최근 재생 가능 에너지(RE) 부문을 개방하는 정부 결정이 이미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FEF는 필리핀이 재생 가능 에너지 부문을 개방한 후 블룸버그가 이 나라를 이러한 투자의 4위 목적지로 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을 "재생 가능 에너지 글로벌 산업의 새로운 달콤한아이로" 변모시켰습니다.

또한 FEF는 풍력 터빈 및 태양 전지판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계 제조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가 이 나라를 이 지역의 기계 제조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mage credits: [Rosshelen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4/29/reforms-not-cha-cha-made-latest-investments-possible/#:~:text=THE%20Philippines%20recent%20victories%20in,investment%20inflows%20for%20certain%20secto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